

‘음악교육연구’를 통한 국내 음악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저자 선정 주제어를 중심으로

곽 현 규* · 곽 민 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음악교육학회 발행 학술지 ‘음악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어들을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음악교육연구’에 게재된 총 369편 논문의 주제어 1371건을 KrTitle 분석프로그램과 UCINET의 NetDraw 의미연결망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0개의 핵심 주제어가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핵심 주제어들 중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가 연결망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논문 주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반면 ‘창의성’, ‘음악감상’, ‘다문화교육’ 등은 중심성 간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며 ‘음악교육’, ‘교육과정’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주제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음악교육, 학술지, 주제어, 의미연결망 분석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문헌 분석의 경향
2. 음악교육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

III. 연구 설계

1. 분석대상의 표본 선정
2. 분석방법 및 절차

IV. 분석결과

1. 주제어 빈도분석
2. 의미연결망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청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수

I. 서론

음악교육학은 넓은 의미로 ‘음악을 통한 인간교육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전제 조건·작용·영향·목적·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좁은 의미로는 교육학 이론에 입각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의 교습(敎習)과 학습(學習)’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함희주, 1993, pp. 140~141). 또한 음악교육학은 음악학의 모든 분야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교육학 이외에도 철학·미학·심리학·예술학·역사학·사회학 등의 방법론을 차용해야 하는 복합성을 가진다. 환경적인 요인도 음악교육학의 복합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전자매체나 전자악기는 물론 컴퓨터 보조수업(CAI), CD와 DVD,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음악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복합성을 갖고 있는 음악교육의 영역은 학자, 교육행정가, 현장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장 동력의 중심에는 1956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를 시작으로 출범한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할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학술대회나 세미나, 콜로키움,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72년부터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인 ‘음악교육연구’는 음악교육의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음악 교육 및 그 응용에 관련된 논문 발간을 목표로,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이미 45권의 학술지가 출판되었으며 수록된 논문의 숫자만 해도 517편에 이른다. 학술지는 2010년 12월 제39집까지 연2회 발간을, 2011년부터 연3회 발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4회로 증회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의 동향(trend)을 파악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동향분석 연구는 과거의 현상이나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용이하다. 연구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수행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이를 통해 현재의 학문적 위상과 구조 그리고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을 미리 예측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음악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 중 저자가 부여한 주제어들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내 음악교

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술논문에는 주제어를 선정함에 있어 전적으로 저자에게 맡겨져 있다. 때문에 비슷한 주제의 논문일지라도 주제어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저자 선정 주제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춘실 외(2000)의 연구나 I. Gil-Leiva 외(2007), 이해영 외(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저자에 의해 부여된 주제어가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터(Descriptor: 문헌의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여 검색의 단서가 되는 단어)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현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한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학술论문을 이용한 양적 연구는 주로 논문의 초록, 자동추출 키워드, 논문의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학술论문의 저자가 직접 선정한 주제어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으로는 '음악교육연구' 학술지 중 주제어가 제시된 2003년 24호부터 2016년 8월까지의 논문 369편의 주제어 1371건이며,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KrTitle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의 NetDraw를 이용하였다.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음악교육연구'의 논문들에 제시된 주제어를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방법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 동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헌 분석의 경향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은 두 유형의 분석 패러다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해 왔다. 하나는 예술적, 자연적, 통합적, 기술적인 것을 다루는 질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 실험적, 연역적, 규범적, 수량적인 것을 다루는 양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비제한적 접근을 시도한다. 즉 연구자는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주어진 현상,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연구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어떠한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를 탐구하고자 한다(나장함, 2006, p. 266). 따라서 연구자는 긍정 또는 부정된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 방법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 등 현실을 탐구하기 위

한 유연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다(Bogdan & Biklen, 1982 : Marshall & Rossman, 1995, p. 2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는 문헌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분석 범주를 정규화 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자가 분석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적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질적 연구는 타당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연구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면에 양적 연구는 구조화 되고 조작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나장함, 2006, p. 266). 자료수집과 자료해석을 위한 도구와 기법이 잘 짜여진 계획에 근거하여 가설을 검증하며, 사전에 설정한 연구방법을 충실히 잘 수행하였는가에 따라 타당도와 신뢰도가 결정된다. 양적 연구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가설 검증을 통한 일반화를 위하여 실험연구와 통계적 측정을 이용하며, 그것들의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과 측정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적이고 계량적인 접근 방법으로 기존 이론에 근거한 연역적 추리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며, 가설검증을 위한 치밀한 과학적 연구 설계에 의한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양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는 달리 자료를 수집한 개인·현장의 맥락(context)이 통계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두 가지의 연구방법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임도빈, 2009, p. 4).

<표 1>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비교

구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접근 방법	▪ 귀납적 추리 : 가설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종결 ▪ 출현(emergence)과 묘사(portrayal) ▪ 주관적 접근 ▪ 자연적(naturalistic)방법 ▪ 개별사례적(idiographic) 접근: 복잡성과 패턴의 발견	▪ 연역적 추리: 가설과 이론으로부터 출발 ▪ 조작(manipulation)과 통제 ▪ 형식을 갖춘 도구의 이용 ▪ 실험 ▪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 평균과 규칙의 발견
자료 표본	▪ 개인적, 기술적(記述的) 기록 ▪ 현장, 노트, 사진, 녹음기, 진술자의 발언 ▪ 표본이 작음 ▪ 이론적인 표집 ▪ 비대표성 샘플(편의적 선택)	▪ 양적 의미부여, 양화가 가능한 부호 ▪ 계산하고 측정함 ▪ 조작화된 변수들 ▪ 통계적이고 표본이 큼 ▪ 통계집단의 존재,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

이렇듯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는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패러다임과 연구의 목적, 여건 등에 따른다. 최근에는 양자 간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음악교육 분야의 학술연구에서도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적연구에서 통계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분석은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현상들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효과적이다. 연구자가 적절한 통계방법을 잘 활용하는 경우 주어진 현상에 대한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들이 증가되면서 연구목적에 위해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분석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연구목적과 통계분석 방법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연구방법론적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음악교육 동향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음악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최은식(2000), 김미숙(2001), 석문주(2004), 원영실(2006), 박기범(2011), 최진호(2011), 신혜경(2013), 정재은·석문주(2014), 김현미(2015)의 연구가 있다.

최은식(2000)은 음악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음악교육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경향을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음악교육연구'는 문헌중심의 연구가 77%,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69%,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57%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가 문헌위주의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연구대상과 연구기법, 연구영역이 편중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미숙(2001)은 미국의 학술지인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에 실린 논문들 중 1991-2000년에 연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찾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영역 등과 같은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들의 예를 들고 이를 통해 음악교육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석문주(2004)는 미국의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인 'Update', 'JRME', 'CRME', 'IJME'에 실린 논문들 중 1994-2004년에 연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논문들의 수를 백분율로 제시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령별, 학교급별 연구대상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했으며, 상세화 된 연구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원영실(2006)은 2000-2005년의 ‘음악교육연구’와 ‘국악과 교육’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육행정,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 음악교육사회, 음악교육평가 및 측정,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사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영역별 분포도를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박기범(2011)은 1980년 이후 국내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주제, 인용분석, 연구주제 및 방법론을 통해 음악교육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최진호(2011)는 ‘음악교육공학’에 실린 학술지 중 2002-2010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류하고 논문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후, 이를 미국의 음악교육 학술지인 ‘JRME’와 비교하였다. 신혜경(2013)은 2000-2011년까지 출간된 ‘JRME’와 ‘CRME’의 수록 논문들을 연구영역, 연구대상 및 참여자, 타당성 검증방법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재은과 석문주(2014)는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출판되는 ‘음악교육연구’ 학술지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음악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2012년까지 게재된 총 243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에 초점을 두어 연구동향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문헌연구가 다수이기는 하나 예비교사를 포함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역사적 연구와 철학적 연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험, 서술, 질적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영역에 있어서는 음악과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의 감소와 더불어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육 심리영역의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표 2> 음악교육 동향분석 방법

연구자 (년도)	논문 제목	기간	분석 대상	분석 준거	분석 방법
최은식 (2000)	21세기 한국 음악 교과교육 연구의 과제 및 전망	창간- 1999년	음악교육연구 학술지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	빈도수 백분율
김미숙 (2001)	JRME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1991- 2000년	JRME 학술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영역	빈도수 백분율
석문주 (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새로운 접근	1994- 2004년	Update, JRME, CRME, IJME 미국 학술지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	빈도수 백분율

연구자 (년도)	논문 제목	기간	분석 대상	분석 준거	분석 방법
원영실 (2006)	한국 음악교육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2000- 2005년	음악교육연구 국악과 교육 학술지	음악교육과정, 행정, 철학, 심리, 사회, 평가 및 측정, 공학, 교육사	빈도수 백분율
박기범 (2011)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 2010년	음악교육연구 학술지	연구주제, 인용분석, 연구주제 및 방법론	빈도수 백분율
최진호 (2011)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2- 2010년	음악교육공학 JRME 학술지	연구방법	빈도수 백분율
신혜경 (2013)	미국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동향 분석	2000- 2011년	CRME, IJME 미국 학술지	연구영역 연구대상 및 연구참여자 질적연구방법 질적자료수집법 타당성 검증방법	빈도수 백분율
정재은 · 석문주 (2014)	'음악교육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2000- 2012년	음악교육연구 학술지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	빈도수 백분율
김현미 (2015)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	2010- 2014년	음악교육연구 학술지	초록 텍스트	의미 연결망

최은식, 김미숙, 석문주, 최진호, 신혜경, 정재은·석문주의 연구는 분석 준거를 연구방법, 대상,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원영실은 음악교육 분야를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박기범은 연구주제 이외에 연구주제, 인용분석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과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나누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제시하는 분석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적합하지만 미시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김현미(2015)는 이를 지적하며 처음으로 음악 분야에 의미연결망 분석을 적용한 논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교육연구'에 실린 논문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수록된 171편의 논문초록을 대상으로 각 주제들의 상호의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 경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수행해 왔던 연구 경향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단순한 주제별 분류방식이 아닌 음악교육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는 무엇인지, 주요 단어들의 연결망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보이며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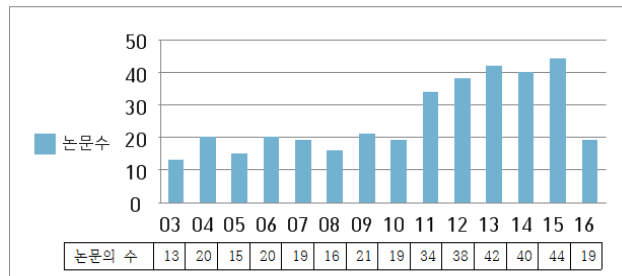
자 했다. 의미연결망분석은 학술지 논문의 주제어 중에서 어떠한 주제어가 중심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주제어들의 세부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를 판별할 수 있다. 김현미는 주제어의 선정을 위해 각 논문의 초록을 메모장에 텍스트파일로 저장한 후 8차의 정제 단계를 거쳐 빈도수 높은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재고할 만한 것은 과연 조사나 접속사, 어미 등을 제거하고 명사화시킨 단어들 중 빈도수가 높아 선정된 단어들이 논문에서 의미 있는 주제어로 쓰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서 추출한 빈도수 높은 단어들이 혹시 문맥상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반복 사용된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춘실 외(2000), 이용덕(2006), I. Gil-Leiva 외(2007), 양찬진(2010)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논문의 저자 선정 주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이춘실 외(2000)의 논문에 나타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논문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이 주제어이며, 주제어는 저자가 직접 선정해야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저자가 부여한 주제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한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에서 빈도수 높은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저자가 직접 선정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대상의 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발간한 ‘음악교육연구’ 학술지 중 저자 선정 주제어가 제시된 2003년 24호에서부터 2016년 8월까지의 논문 349편의 1371개 주제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 총 발간된 논문은 360편이었으나 주제어가 빠져있는 11편은 제외하였다. ‘음악교육연구’는 1972년부터 발간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는 연간발행을, 2010년까지는 연2회, 2011년부터는 연3회 발간했으며, 2015년부터는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본 연구 표본의 논문 편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연구 표본의 논문 편수 추이

2. 분석방법 및 절차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KrTitle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의 NetDraw를 이용하였으며, 논문자료는 한국음악교육학회 홈페이지(<http://www.kmes.or.kr/>)에서 수집하였다.

의미연결망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우선 2003년 24호에서부터 2016년 8월까지의 논문 349편에서 저자가 선정한 총 1,371개의 주제어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음악선생님’과 ‘음악교사’는 ‘음악교사’로, ‘해외음악교육’과 ‘국외음악교육’은 이 중 더 많이 사용된 ‘해외음악교육’ 등으로 통일시키며 5차례의 교정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추출된 주제어를 대상으로 다시 한국어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KrTitle을 이용하여 주제어의 빈도 및 주제어들 간의 공동출현 빈도를 산출하여 빈도수가 많은 상위 30위까지의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KrTitle은 KrKwic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논문, 웹페이지, 언론, 기사, 특허, 법조문 등의 제목과 같이 비교적 짧은 한국어 메시지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단어들 사이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의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동출현 단어들의 연결망을 시각화하였다. 또한 각 주제어가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가늠하기 위해 프리만(Freeman(1979))의 중심성 개념 정리와 측정 방법을 토대로 각종 중심성(centrality) 수치를 산출하였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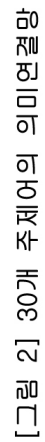
1. 주제어 빈도분석

저자가 직접 제시한 1,371개의 주제어들을 총 5차의 정제 작업을 걸쳐 축약해 나갔으며, 이 주제어들 중 빈도수가 많은 상위 30위까지의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출현 빈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핵심주제어의 빈도

주요핵심어	빈도	주요핵심어	빈도	주요핵심어	빈도
음악교육	107	음악교육연구	13	음악철학	6
교육과정	68	음악영재	12	자기효능감	6
음악교사	57	개정교육과정	12	스트레스	4
국악교육	29	음악교과서	11	피아노교수학	4
창의성	21	음악감상	11	구성주의	4
유아음악	20	다문화교육	9	아츠프로펠	4
통합교육	14	음악적성	8	음악적성향	4
가창	13	교수내용지식	8	심미적음악교육	4
교사교육	13	방과후학교	6	문화예술교육	3
해외음악교육	13	음악수업	6	컴퓨터음악	3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는 ‘음악교육’이었으며, ‘교육과정’, ‘음악교사’, ‘국악교육’, ‘창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텍스트 내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하지 않고 저자가 제시한 주제어를 정제함으로써, ‘음악’, ‘교육’, ‘과정’ 등의 독립된 단어로 추출 되었을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조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저자가 직접 제시한 주제어를 추출함으로써 ‘음악교육’, ‘교육과정’ 등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용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음악교육’이나, ‘교육과정’ 등 논문에 제시된 빈도가 높은 주제어일수록 그 동안의 음악교육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시대상을 반영한 듯 ‘창의성’이나 ‘통합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음악교사’, ‘개정교육과정’ 등의 주제어가 연결망 중심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결망 내의 다른 단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음악교육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 또한 매우 중요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음악교육’ 왼쪽으로는 ‘개정교육과정’, ‘교사교육’, ‘음악교사’, ‘방과후학교’ 등이, ‘음악교육’ 오른쪽으로는 ‘음악감상’, ‘다문화교육’, ‘유아음악’ 등이 작은 관계망을 만들고 있다. 또한 ‘피아노교수학’, ‘음악적 성향’, ‘자기효능감’, ‘문화예술교육’ 등은 관계망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이는 연결망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은 전체 연결망의 중앙에 가깝게 배치되고, 상호간의 연결선이 굵을수록 공동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의미연관성이 높고 먼 위치에 있을수록 의미연관성이 낮음을 뜻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창의성’이나 ‘가창’은 빈도수가 상위에 포진해 있지만 의미연결망 외곽에 위치해 있어 핵심적인 연구주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다른 주제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비해 ‘음악교과서’나 ‘다문화교육’의 빈도수는 낮은 편이지만 의미연결망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에 활용된 각각의 30개 단어에 대한 연결빈도 수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핵심 주제어의 연결빈도 수

빈도 순위	주제어	연결 빈도	빈도 순위	주제어	연결 빈도	빈도 순위	주제어	연결 빈도
1	음악교육	22	11	음악교육연구	3	21	음악철학	4
2	교육과정	12	12	음악영재	3	22	자기 효능감	2
3	음악교사	12	13	개정교육과정	6	23	스트레스	3
4	국악교육	10	14	음악교과서	7	24	피아노 교수학	2
5	창의성	7	15	음악감상	8	25	구성주의	2
6	유아음악	10	16	다문화교육	5	26	아츠 프로펠	3
7	통합교육	4	17	음악적성	4	27	음악적 성향	2
8	가창	2	18	교수내용지식	3	28	심미적 음악교육	3
9	교사교육	6	19	방과후학교	6	29	문화예술교육	2
10	해외음악 교육	5	20	음악수업	7	30	컴퓨터 음악	3

<표 4>를 통해 보았을 때,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음악교사'가 다른 단어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었으며, '국악교육', '유아음악', '음악감상'이 다른 단어들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었다. 연결빈도 수로 판단해 보았을 때, '유아음악'이나 '음악감상'의 연결빈도 수가 '창의성'의 연결빈도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되어, '창의성'은 빈도수에 비해 연결정도가 낮아 다른 연구주제들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효능감', '피아노교수학', '구성주의', '음악적성향', '문화예술교육' 등의 주제어는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빈도 수가 많지 않고 전체 연결망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하여 의미망의 관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들과 많은 영향 관계를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단어들은 독립적인 세부 연구 분야의 주제어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중심성(Centrality)은 한 행위자 혹은 결점이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이 있다. 다음의 <표 5.1>과 <표 5.2>에서 다양한 중심성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핵심 주제어의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순위	변수	연결 중심성	순위	변수	근접 중심성
1	음악교육	136	1	음악교육	36
2	교육과정	83	2	음악교사	48
3	음악교사	36	3	교육과정	49
4	개정교육과정	31	4	국악교육	49
5	국악교육	30	5	유아음악	49
6	해외음악교육	29	6	음악감상	52
7	음악교과서	26	7	음악수업	52
8	유아음악	21	8	창의성	53
9	교사교육	19	9	방과후학교	54
10	음악수업	16	10	통합교육	55
11	음악적성	13	11	음악교과서	55
12	심미적음악교육	12	12	개정교육과정	56
13	음악교육연구	11	13	교사교육	56
14	음악감상	11	14	다문화교육	56
15	방과후학교	11	15	해외음악교육	57
16	창의성	10	16	스트레스	58
17	음악철학	9	17	음악교육연구	59
18	교수내용지식	9	18	교수내용지식	59
19	통합교육	8	19	가창	60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순위	변수	연결 중심성	순위	변수	근접 중심성
20	음악적성향	8	20	음악철학	60
21	다문화교육	8	21	컴퓨터음악	60
22	가창	6	22	심미적음악교육	61
23	음악영재	5	23	피아노교수학	62
24	문화예술교육	5	24	문화예술교육	62
25	컴퓨터음악	3	25	음악영재	64
26	자기효능감	3	26	음악적성	69
27	아츠프로펠	3	27	자기효능감	73
28	스트레스	3	28	구성주의	73
29	구성주의	3	29	아츠프로펠	75
30	피아노교수학	2	30	음악적성향	76

<표 5.2> 핵심 주제어의 중심성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성 (Eigenvector centrality)		
순위	변수	매개 중심성	순위	변수	위세 중앙성
1	음악교육	183.298	1	음악교육	0.605
2	음악교사	51.994	2	교육과정	0.550
3	유아음악	46.594	3	해외음악교육	0.291
4	교육과정	24.142	4	개정교육과정	0.256
5	국악교육	23.141	5	음악교사	0.187
6	창의성	22.824	6	음악교과서	0.171
7	음악수업	19.022	7	국악교육	0.152
8	음악감상	16.565	8	심미적음악교육	0.127
9	방과후학교	16.388	9	교사교육	0.123
10	통합교육	12.086	10	음악수업	0.118
11	다문화교육	4.958	11	음악교육연구	0.098
12	음악교과서	4.511	12	음악철학	0.089
13	아츠프로펠	3.208	13	교수내용지식	0.085
14	음악적성	2.700	14	유아음악	0.072
15	자기효능감	2.260	15	방과후학교	0.071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성 (Eigenvector centrality)		
순위	변수	매개 중심성	순위	변수	위세 중앙성
16	음악영재	1.560	16	통합교육	0.063
17	해외음악교육	1.167	17	가창	0.054
18	개정교육과정	1.042	18	문화예술교육	0.048
19	교사교육	0.875	19	음악감상	0.035
20	음악철학	0.333	20	창의성	0.030
21	구성주의	0.333	21	다문화교육	0.028
22	가창	0	22	피아노교수학	0.022
23	음악교육연구	0	23	스트레스	0.018
24	스트레스	0	24	컴퓨터음악	0.016
25	피아노교수학	0	25	음악영재	0.014
26	교수내용지식	0	26	음악적성	0.008
27	문화예술교육	0	27	자기효능감	0.007
28	음악적성향	0	28	음악적성향	0.004
29	컴퓨터음악	0	29	구성주의	0.003
30	심미적음악교육	0	30	아츠프로펠	0.003

<표 5.1>에서와 같이 한 노드(node)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의 절대적인 수를 측정한 연결 중심성을 살펴보았을 때,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 ‘개정교육과정’, ‘국악교육’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 노드가 전체 연결망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접 중심성에서는 ‘음악교육’, ‘음악교사’, ‘교육과정’, ‘국악교육’, ‘유아음악’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근접 중심성의 수치가 낮은 단어일수록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표 5.2>에서는 매개중심성과 위세 중앙성을 나타내었다. 전체 연결망 내에서 한 노드가 얼마나 중개자 혹은 다리(bridge)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나타내는 개념인 매개 중심성에서는 ‘음악교육’, ‘음악교사’, ‘유아음악’, ‘교육과정’, ‘국악교육’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각 노드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의 다른 노드와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 위세 중앙성은 ‘음악교육’, ‘교육과정’, ‘해외음악교육’, ‘개정교육과정’, ‘음악교사’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음악교육’은 전체 연결망의 핵심 위치에서 나머지 단어들과 연결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음악교사’도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일지라도 중심성 지수는 각각 다르게 산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성’은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지수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전체 연결망에서 비교적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다른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 또한 잘 수행하고 있지만, 연결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인 ‘음악교육’이나 ‘교육과정’ 등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결빈도 수가 다른 단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 등의 단어들의 중심성 수치 또한 높게 산출되었다. 특히, ‘음악교육’은 모든 중심성 수치가 다른 단어들보다 높게 산출되어, 대부분의 연구물이 학회지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해외음악교육’, ‘개정교육과정’, ‘음악교과서’ 등의 단어들은 위세 중심성의 상대적 순위가 근접 중심성 혹은 매개 중심성 보다 높게 산출되었는데, 이러한 주제어들은 전체 연결망에서 위세 및 영향력이 높은 단어들인 ‘음악교육’, ‘교육과정’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문화교육’은 연결망에서 중심부에 위치하여 논문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단어들 사이의 매개자의 역할 또한 매우 잘 수행하는 주제어이지만, 상대적으로 위세 혹은 영향력이 높은 단어들과는 연결 정도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주로 영향력이 높지 않은 단어들과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음악교육학회’의 수록 논문들 중 2003년 23호 논문부터 2016년까지의 주제어를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의 연구 주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제어와 각 주제어들 간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론적 연관을 갖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1,371개의 주제어를 의미연결망 분석으로 실시했을 때, 총 30개의 핵심 주제어가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핵심 주제어들 중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는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 ‘국악교육’, ‘창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내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하지 않고 저자가 제시한 주제어를 정제함으로써, ‘음악’, ‘교육’, ‘과정’, ‘교사’ 등의 독립된 단어로 추출 되었을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조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때문에 '음악교육', '교육과정' 등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용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음악교육'이나, '교육과정' 등 논문에 제시된 빈도가 높은 주제어일수록 그 동안의 음악교육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시대를 반영한 '창의성'이나 '통합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주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가 연결망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논문 주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김현미(2015)의 연구에서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이 연결 중심망의 외곽 쪽에 위치했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아마 연구대상의 기간이 5년에서 14년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며, 텍스트에서 뽑은 주제어와 저자 선정 주제어 간의 추출 방식에서 오는 차이라고 판단된다.

각종 중심성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가 높았지만 '창의성', '음악감상', '다문화교육' 등은 중심성 간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음악교육'은 전체 연결망의 핵심 위치에서 나머지 주제어들과 연결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음악교사'도 전체 연결망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창의성', '음악감상', '다문화교육'은 전체 연결망에서 비교적 중심부에 위치해 다른 주제어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연결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음악교육'이나 '교육과정' 등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지 않아 주로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결빈도 수가 많았던 '음악교육', '교육과정', '음악교사' 등의 단어들의 중심성 수치 또한 높게 산출되었다. 특히, '음악교육'은 모든 중심성 수치가 다른 단어들보다 높게 산출되어, 대부분의 연구물이 학회지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해외음악교육', '개정교육과정', '음악교과서' 등의 주제어들은 '음악교육', '교육과정'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략 14년간의 음악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음악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들은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교육'은 네 가지 주제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째 교육과정에서 개정교육과정으로 연계된 연구, 둘째, 음악교육 중 해외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셋째, 음악교육의 주체인 음악교사에 관한 연구, 넷째, 유아

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문 분야가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학술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학술지는 연구 결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이 시점에서 좀 더 폭넓고 정확하게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 시간의 정리와 함께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해서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학술지에 제시된 논문의 주제어를 활용한 주제적 관점에서 내용의 계량적 접근은 기존의 연구동향과 구별될 뿐 아니라 정보내용 및 정보형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점이 될 수 있다.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 1-19.
- 김현미(2015).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음악교육연구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4(4), 49-68.
- 나장함(2006). 질적 연구의 다양한 타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교육평가 연구**, 19(1), 265-283.
- 박기범(2011).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9(2), 57-76.
- 석문주(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신혜경(2013). 미국 음악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91-117.
- 양찬진(2010). 학술 논문의 주제어 표기 및 활용 방안 연구-DB 구축 및 정보 연계의 관점에서. **인문콘텐츠**, 395-416.
- 원영실(2006). 한국 음악교육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국악과 교육**, 24, 7-30.
- 이경서(2001). **조사방법론**, 서울: 학문사.
- 이용덕(2006). 일본학 관련 전문학술지에 나타난 주제어 분석-日本學報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31, 107-121.
- 이춘실, 문혜원(2000). 한국의학 학술논문의 저자 선정 주제어와 MeSH 용어의 비교 분석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제7회 학술대회 논문집**.
- 이혜영, 곽승진(2011). 국내 학술지 논문의 주제어를 통한 학술연구분야 관계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353-371.
- 임도빈(2009). 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자료, 4.
- 정재은, 석문주(2014). '음악교육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음악교육연구**, 43(1), 164-188.
- 최은식(2000). 21세기 한국 음악 교과교육 연구의 과제 및 전망. **한국음악교육학회 분기발표 자료**, 1-16.
- 최진호(2011).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12, 205-220.

- 함희주(1993). 음악교육학의 이해. **음악과 민족**, 6, 140-160.
- Blessinger, K. and Frasier, M.(2007). Analysis of a decade in library literature : 1994-2004.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55-170.
- Bogdan, R. C. & Biklen, S. K.(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MA: Allyn & Bacon.
- Gil-Leiva, I. and A. Alonso-Arroyo(2007). Keywords Given by Authors of Scientific Articles in Database Descriptor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8): 1175-1187.
- King, G., Keohane. R. O. & Verba. S.(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 Focusing on key words selected by the author

Hyun-Gyu Kwag · Min-Seok Kwa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 in Korea by means of correlation analysis of key words selected by the author among articles i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published by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nalysis subjects were 1371 key words in 369 articles between 2003 and August 2016 i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As for analysis program, KrTitle Soft Program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program NetDraw of UCINET were used. As a result, total 30 key words were extracted. Among them, 'music education', 'course curriculum' and 'music teacher' are at the center of network which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tructuring topics of the thesis. And, as for centrality index, while 'music education', 'course curriculum' and 'music teacher' were high, 'creativity', 'music appreci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d apparent differences in their centrality.

Key words: music education, journal, key word, semantic network analysis

투고일: 2016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7년 1월 11일(1월 13일), 게재확정일: 1월 26일